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KLPGA 대의원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직에 입후보한 최윤경입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의원님들과 회원 선후배님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협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과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KLPGA 투어는 코로나19 상황 대응 및 철저한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결과 우리 KLPGA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를 정상 시즌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뒤에는 김정태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및 사무국 직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회원들이 위임해주신 감사로서 협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직을 이행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데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내용을 토대로 업무 감사뿐만 아니라, 투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선수들을 만나면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현장 감사 업무도 진행하면서 협회 제도와 사무국의 업무를 개선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 업무를 하면서 회원들과 투어에 참가한 선수들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회원과 선수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이해의 폭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회 감사를 수행하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직 회원들과 투어에 참가한 선수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직은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의결권이 없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사직에 입후보하여 현재 시대 흐름에 맞는 협회 회원과 투어에 참가한 선수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지난 5년간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배우고 깨닫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가 한 걸음 더 회원에게 다가가 소통하고 화합하여 궁극적으로 협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협회 이사로서 KLPGA 회원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성 명 : 최윤경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